



우수작

젊은 사극의 신선한 도발

드라마 <공주의 남자>와 <성균관 스캔들>

이수향

1. 사극의 새로운 진화

텔레비전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에게서 소프 오페라(soap opera)로 평가절하되기 일쑤이다. 대중성과 몰입성, 그리고 충성도의 측면에서 예능이나 교양 다큐 프로그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늘 한 시기 열심히 보고 그냥 흘려보내는 장르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가 현실을 바탕으로 당대 현실을 보다 더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맛보지 못한 여러 삶의 다양성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드라마 중에서도 시대극인 사극은 우리에게 어떤 현재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이 글에서 최근의 사극의 변화 흐름에 주목한 이유이다.

그간 사극은 주로 왕권 다툼 중심의 고루한 남성용 드라마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사극의 흐름은 <태조왕건>, <용의 눈물>, <주몽>, <대왕세종>과 같은 왕조사를 바탕으로 영웅적인 인물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다모>(2003)를 기점으로 퓨전사극의 새로운 흐름이 열리면서 사극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달라진 현대의 상황에 맞게 변형되어왔다. 이 변화로 인해 그간 남성 권력쟁투 중심의 사극 서사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 인물을 적극적으로 조명하여 여자를 원톱 주인공으로 삼게 되기도 하였다. <대장금> 이래 <천추태후>, <선덕여왕>, <동이> 등의 작품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들 드라마 역시 주인공만 여성으로 바뀌었을 뿐, 주인공 한 명의 특이한 일대기나 뛰어난 면모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 그리고 흔히 설명되는 영웅서사의 구조에 함몰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극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방영된 사극들은 이러한 영웅 중심의 서사까지 흔드는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2010년에 방영된 사극은 <제중원>, <추노>, <김만덕>, <동이>, <김수로>, <성균관 스캔들>이고, 2011년에 방영된 사극은 <근초고왕>, < 짝패>, <계백>, <광개토대왕>, <공주의 남자>, <무사 백동수>, <뿌리 깊은 나무>이다. 여전히 KBS1 채널의 주말 저녁 시간대에는 왕 중심의 남성용 드라마가 방영되지만, 그 외의 드라마는 이러한 기존의 통념을 깬 새로운 변화들이 눈에 띈다. 우선 주인공들이 더 이상 왕이나 양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평민 심지어 천민인 노비까지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드라마에서도 궁궐이나 조정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서사의 핵심 배경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다룬 정도로만 처리된 경우가 많다. 이제 사극은 왕권 다툼, 권력 싸움, 비빈 간의 질투와 반목에서 벗어나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드라마 중에서 사극의 새로운 진화형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면서도 시청률에 있어 성과를 올려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었던 드라마인 <성균관 스캔들>(2010, KBS2)과 <공주의 남자>(2011, KBS2)를 중심으로 사극의 의미 있는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2. 로맨스 드라마의 수사학 비틀기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은 젊은 성균관 유생 4인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노론 당수의 아들이자 올곧은 선비인 이선준과 가난한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장을 하고 글재주를 파는 김윤식, 현실을 조소하면서도 유희와 사치 이외에는 흥미가 없는 구용하, 그리고 형의 복수를 생각하며 밤마다 조정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붙이고 다니는 문재신 이렇게 넷은 각각의 상황과 인생관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성균관이라는 공간에 모이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일들을 겪고 금상의 ‘금등지사’를 찾아내는 밀명을 받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나가게 된다. 이 작품에도 조정이나 국왕, 당파 싸움이 등장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작품의 배경으로 처리되어 있을 뿐 주인공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여자인 김윤희가 남자의 복색을 하고 금녀의 공간인 성균관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죄충우돌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과 사랑이 이야기의 골격이다.

<공주의 남자> 역시 작품의 중요 배경은 세조의 왕위찬탈사건과 골육상쟁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이지만, 작품의 제목에서도 암시하듯 ‘공주’와 그녀의 ‘남자’, 즉 로맨스가 중심이다. 기존의 역사극에서는 주로 영웅적 권력과 정복욕을 다루었다면 이들 두 작품에서는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남녀 간의 로맨스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시대극이라는

배경에 비해 서사는 현대적인 멜로드라마의 특징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적인 멜로드라마가 사랑에 대한 갈등을 중심으로 선인과 악인을 뚜렷이 구분하고 악인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징벌에 시청자들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반면, 이 두 작품은 익숙한 멜로드라마의 공식을 차용하면서도 비틀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드라마는 시대극적인 복식과 상황 설정, 대사의 어투에도 불구하고 고루하다거나 칙칙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성균관 스캔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대의 로맨스 코미디물이 주듯 경쾌하고 발랄하다. 조선조 사회의 완고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주인공들은 고뇌를 진지하고 격식 있는 고어체가 아닌 재치 있는 대사와 솔직 담백한 태도로 타파해나가 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멜로드라마 공식에서는 심성이 착하고 예쁘지만 가난한 여주인공을 남주인공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어 그 상황에서 구제하는 것에 비해, 이 작품에서 김윤식은 성균관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를 풀며 누구보다 특출난 실력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의 몸으로는 하기 힘든 활쏘기 대회에서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연습한 끝에 성과를 이루어내는 장면과 결국 금등지시를 찾아내는 장면에서는 남주인공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결말에서 그녀가 이선준과 결혼하기는 하지만, 결혼 자체가 그녀를 높은 지위에 올려주거나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든 성균관 생활에서 견디고 배운 것들로 그녀 스스로 이룬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멜로드라마에 등장하는 신데렐라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쟁취적인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주의 남자>의 경우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무거운 편이지만, 제목에서부터 한 남자의 여인이라는 소유격을 배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승유가 세령의 남자로 묘사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작품에서 김승유가

집안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나서는 것보다 세령이 자신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로맨스는 서양의 중세에서 주로 ‘레이디’로 상징되는 여성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그녀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기사도의 정신에서 유래된 장르이다. 그래서 현대적인 드라마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그녀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나타나서 구해주는 기사의 모습이 재현된다. 이러한 설정은 흔히 재벌 2세와 가난하고 심성 착한 여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로 그려지는데 그 상투성과 진부함이 오히려 재미를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세령은 오히려 김승유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늘 그를 구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결말에서도 결국 눈이 멀어버린 김승유를 보살피고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사극이 보여주었던 영웅적 인물의 이상화, 구성적 방법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으로 시대극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허술한 고증 문제와 역사적 사실과의 대치 문제 등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지만, 사극에 있어 역사적 사실과의 완벽한 일치만을 따질 수는 없다. 사극 역시 대중적 재미를 추구하는 텔레비전 드라마이고 보다 이채롭고 흥미롭게 역사를 그려내어야 역사서와는 다른 사극 본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최대한 사료를 기반으로 하되 기술되지 않은 빈틈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메운 것이 사극의 특징이고, 관객들은 그 새로운 인과관계의 틀을 보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역사를 극으로 재현하는 데에 있어 단순히 영웅적 인물만을 형상화하고, 그것으로 민족 담론에 부응하던 기존의 역사극과 이들 작품의 변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작품은 모두 시대극이라는 외피를 띠고 있지만, 오히려 현대극보다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극 내러티브의 새로운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버지’를 어기고 성장하다

<성균관 스캔들>에서 노론이나 소론, 남인 같은 당파로 나뉘어 있는 현실의 상황은 각각의 인물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당파에 따라 나뉘어서 반목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어른 세대들이 자신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틀에 맞서려고 한다. 특히 최고 권력인 노론의 아들 이선준과 몰락한 남인의 딸인 김윤희(김윤식)는 당파, 집안 환경, 사람들의 기대 어느 것 하나 일치하지 않지만 결국 사랑의 성취라는 결말을 맞게 된다. 그리고 세상일에는 관심 없고 사치만 부리기 좋아하는 듯 보이는 구용하와 세상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일관하는 문재신도 서로 맞지 않아 보이지만 깊은 우정으로 친구를 어려움에서 구해내게 된다.

<공주의 남자>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는 주인공인 세령공주이다. 그녀는 조선조 여인에게 요구되었던 요조숙녀의 모습을 버리고, 자신의 미래의 배필을 보기 위해 사촌언니와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말타기를 배우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아버지인 수양대군이 세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쟁투에 밑받침이 되도록 정략결혼을 통해 자신을 돕고, 후에는 공주로서 압전히 궁궐에 앉아 있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세령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반대하는 자신의 남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한다.

이 두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이 되는 것은 아버지 세대들이 가진

욕망과 권력욕을 자식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들은 노회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혹은 왕권을 찬탈한 왕의 모습으로 등장해 이 모든 것이 ‘너희들’(자식들)의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선준과 구용하, 문재신 그리고 세령공주는 부친들이 폭력과 피로 얻어낸 권력이 과연 진짜인지를 묻는다. 아버지가 가문과 명예라는 이름으로 이들에게 지시한다면, 이들은 ‘도의’로 그것에 맞선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편안히 살아온 삶의 환경이 거짓으로 꾸며진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타인에게는 무자비한 살육을 일삼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책상물림 도련님이거나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아가씨에 불과했던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깨어지고 그 속에서 혼란스러워하지만 결국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때로는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되었을 고생스러운 길에 서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젊은 주인공들은 그 고통의 아픔보다 지켜내야 할 것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렇듯 두 작품이 보여주는 성장의 서사는 그간 우리가 사극을 통해 보았던 영웅적인 인물의 비범한 출생과 고난, 그리고 성공으로 이어지는 일대기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우리가 전통적인 사극에서 선인이 살아남아 왕권을 쟁취한다는 다소 현실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설정에 주목했다면, 이들 작품에서 보여주는 쾌감은 현실의 우리의 삶의 양태와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파나 신분제라는 것을 제외하면, 현대의 젊은 청년들은 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젊은 패기로 기성세대의 완고함과 불합리함에 저항한다. 삶의 경험으로 힘 혹은 돈을 가지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아는 나이 든 세대는 늘 젊은이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미덥지

않고 조마조마하다.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이 공식처럼 되어버린 사회에서 도의나 양심을 지켜간다는 것이 젊은 그들을 도리어 파멸로 이끌 수 있으리라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남을 밟고서라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성공이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보다는 다소 확률이 낮더라도 자신의 양심을 지켜가는 길을 택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들 사극에 열광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점도 비슷하다. 몰락한 남인의 아들이 성균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군세계 이겨내며 결국 금상의 밀명을 완수하고 공주가 아버지의 패륜적 행동으로 불쌍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신분마저 버리는 것은 시대극이 가지는 고무한 틀 속에서도 현대에도 통용될 만한 가치를 감각적으로 재해석해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작품은 시청 계층을 기존의 중년 남성들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까지 끌어올 수 있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자본주의’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자본주의’라는 말에서 ‘기회의 평등’이라든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휘황찬란한 불빛 뒤에 숨어 있는 음험한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보아왔던 까닭이다. 누구나 알듯이 세계는 치열한 생존의 싸움터이자 내가 아니면 네가 죽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투적인 메커니즘 아래 우리는 강박증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모든 것은 서열화되고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며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도태되어 비난받게 된다. 평범한 일상에 도사리는 그 추악한 그림자를 우리는 끄적해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성원으로 모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제는 퇴색되어버려 오래된 책장의 먼지 쌓인 케케묵은 것들로 존재하는 사랑과, 선, 양심, 성실 등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이제는 아무도 그 가치를 논하지 않는, 우리에게 조그만 고민거리조차 안겨주지 못하는 가치들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이 작품들은 여전히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때로는 건조하고 거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비로소 건져낸 보석들은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그 가치들에서 한 걸음도 비껴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분명히 사랑, 도의, 성실함 같은 근원적인 가치들의 실현이다. <성균관 스캔들>에서 정조와 잘금 4인방이 꿈꾸는 세상은 신분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조선이었다. 그리고 <공주의 남자>에서 세령과 김승유가 지켜내고자 했던 사랑은 권력과 복수를 뛰어넘은 숭고한 가치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작품은 사극 내러티브의 새로운 진화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